

2013년 제5회 커뮤니티비즈니스 한일포럼

저출산 고령화 시대의 커뮤니티비즈니스

커뮤니티비즈니스, 저출산 고령화 시대의 새로운 가능성을 찾다

사업 소개

포럼 개요

- 행사명 : 제5회 커뮤니티비즈니스 한일포럼
- 주제 : 저출산 고령화 시대의 커뮤니티비즈니스
- 일자 : 2013년 11월 7일(목)_서울 / 11월 8(금)_완주
- 장소 : 이화여대 삼성교육문화관 103호 교육문화홀 / 완주군 완주문예회관
- 주최 : (재)희망제작소, 완주군/완주CB센터
- 후원 : 일본국제교류기금, 완주군

커뮤니티비즈니스 한일포럼 소개

희망제작소는 2007년 커뮤니티비즈니스를 한국에 소개하면서 완주군과 함께 2008년(제1회 포럼)부터 정례적으로 커뮤니티비즈니스 한일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커뮤니티비즈니스(Community Business)는 지역을 살리는 것을 외부의 자원이 아닌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의 과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그리고 문화와 환경 등 지역주민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가치를 계승하면서 공동체가 중심이 되어 주도하는 마을 사업입니다.

커뮤니티비즈니스 한일포럼은 한국과 일본의 커뮤니티비즈니스를 상호 교류하고 학습하는 자리로써, 정례적으로 그 시기에 주요한 사회이슈를 주제로 포럼을 개최합니다.

올해는 양국의 공통적인 이슈인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처하는 한·일 양국의 커뮤니티비즈니스의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사회적인 필요에 대응하는 커뮤니티비즈니스를 통한 다양한 가능성(지역공동체 복원 및 사회문제 해결, 공동체 일자리 창출 등)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제5회 커뮤니티비즈니스 한일포럼 소개

저출산, 고령화의 흐름에 대응하는 일본의 다양한 육아, 교육, 노인관련 커뮤니티비즈니스 사례를 우리나라에 소개하고, 국내에서 자생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공동체 및 NPO 활동을 소개함으로써, 양국의 커뮤니티비즈니스에 대한 교류와 이해의 폭을 넓히고, 우리나라의 커뮤니티비즈니스 활동의 진전에 기여하는 실천적인 방안을 찾고자 합니다.

첫째 날은 대중포럼을 통해서 일본과 한국에서 육아/보육/노인복지 등에 대한 양국의 공동체 활동 경험과 관련 커뮤니티비즈니스 사례를 공유합니다.

둘째 날은 사례지역(완주군)을 방문하여 지역주민, 활동가, 공무원들과 의견을 교환하고 상호 학습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됩니다.

지난 포럼 소개

제1회 커뮤니티비즈니스 한일포럼

주제 : '커뮤니티비즈니스', 지역재생과 자립을 위한 대안찾기
일시 : 2008년 9월 18일(목) ~ 19일(금)
장소 : 서울(충무아트홀) / 완주(전북도립미술관)

제2회 커뮤니티비즈니스 한일포럼

주제 : 지역순환형 사회를 지향하는 커뮤니티비즈니스 전략포럼
일시 : 2010년 11월 3일(수) ~ 5일(금)
장소 : 서울(이화여대 삼성교육문화회관) / 완주(완주군 지역경제순환센터)

제3회 커뮤니티비즈니스 한일포럼

주제 : 커뮤니티비즈니스, 다시 사람이다. - 문화적 자원활용과 인재육성전략
일시 : 2011년 11월 15일(화) ~ 16일(수)
장소 : 서울(서울중앙우체국 포스트타워) / 완주(완주군 지역경제순환센터)

제4회 커뮤니티비즈니스 한일포럼

주제 : 지속가능한 농촌, 에너지 자립은 가능하다
일시 : 2012년 11월 14일(수) ~ 15일(목)
장소 : 완주군 문예예술회관 / 지역경제순환센터



포럼 세부 일정

CB한일포럼 in 서울

11월 7일(목) 13:00~17:40

인사말 축사	13:00 ~13:20	윤석인 희망제작소 소장 임정엽 완주군수 고지마 히로유키(小島覺之) 일본국제교류기금 서울문화센터 소장
기초 강연	13:20 ~13:50	▶ 저출산, 고령화 시대의 커뮤니티비즈니스 사례와 방향 니시다 히로유키(西田洋之) 교토NPO센터 사무국 차장 전.교토시 시민활동종합센터 관장
1세션 저출산/ 보육 분야	13:50 ~15:20	▶ 갑자기 아픈 내 아이를 걱정없이 맡길 수 있는 곳 코마자키 히로키(駒崎弘樹) NPO법인 프로렌스 대표 ▶ 장난감박물관, 육아 지원 및 아동의 건전 육성 타다 치히로(多田千壽) 도쿄 오모차 미술관(장난감박물관) 대표 ▶ 한국사례 : 공동육아협동조합과 친밀공동체 정성훈 (사)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전문위원
휴식	15:20 ~15:30	휴식
2세션 고령화 분야	15:30 ~17:10	▶ 저출산 고령화 시대의 협동조합 운동 (요코하마에서 활동하는 워커즈 콜렉티브, 육아 지원 및 노인 개호, 시니어 지원 활동) 세키구치 아키오(関口明男) 복지클럽생활협동조합 전무이사 ▶ 시니어와 육아 지원을 위한 마을만들기 활동 (도쿄 타마시를 거점으로 고령자 및 육아 지원 활동을 통해 마을만들기를 하는 NPO) 테라다 미에코(寺田三恵子) NPO법인 복지정 대표 ▶ 한국사례 : 희망제작소 시니어사회 공헌센터 사례 정창기 희망제작소 시니어사회공헌센터 센터장 완주군의 생산적 농촌복지 추진 사례 임정엽 완주군수
종합 토론	17:10 ~17:40	발표자 전원 참가 / 객석으로부터 질의.응답



CB한일포럼 in 완주

11월 8일(금) 14:00~17:30

인사말 축사	14:00 ~14:20	임정엽 완주군수 윤석인 희망제작소 소장 고지마 히로유키(小島覺之) 일본국제교류기금 서울문화센터 소장
기초 강연	14:20 ~14:50	▶ 저출산, 고령화 시대의 커뮤니티비즈니스 사례와 방향 니시다 히로유키(西田洋之) 교토NPO센터 사무국 차장 전.교토시 시민활동종합센터 관장
1세션 저출산/ 보육 분야	14:50 ~15:30	▶ 장난감박물관, 육아 지원 및 아동의 건전 육성 야마다 신(山田心) 도쿄 오모차 미술관(장난감박물관) ▶ 한국사례 : 공동육아협동조합과 친밀공동체 정성훈 (사)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전문위원
2세션 고령화 분야	15:30 ~16:50	▶ 저출산 고령화 시대의 협동조합 운동 (요코하마에서 활동하는 워커즈 컬렉티브. 육아 지원 및 노인 개호, 시니어 지원 활동) 세키구치 아키오(関口明男) 복지클럽생활협동조합 전무이사 ▶ 시니어와 육아 지원을 위한 마을만들기 활동 (도쿄 타마시를 거점으 로 고령자 및 육아 지원 활동을 통해 마을만들기를 하는 NPO) 테라다 미에코(寺田三恵子) NPO법인 복지정 대표 ▶ 원주노인생활 협동조합 박태진 원주노인생활 협동조합 이사장 ▶ 완주군의 고령화대책 사례 김창환 완주CB센터 사무국장
종합 토론	16:50 ~17:30	발표자 전원 참가 / 객석으로부터 질의.응답



[일본 강연자 소개 1] - 기조강연(저출산, 고령화 시대의 커뮤니티비즈니스의 사례와 방향)
니시다 히로유키(西田洋之)

주요 경력 >>>

현 교토NPO센터 사무국 차장
전 교토시 시민활동종합센터 관장



단체 소개 >>>

교토 NPO 센터 / 교토 시민활동종합지원센터교토는 1200년간 일본의 수도였기 때문에 역사적 자산, 인재가 많고, 현재도 대학과 연구기관이 다수 있으며 등록된 NPO만 800여개 이상임. 교토NPO센터는 시민 개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보다는 NPO를 대상으로 지원하고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또한 교토NPO센터는 일본정부와 교토시의 위원회에 참여하면서, 법률, 제도를 NPO들이 활동하기에 편하게 개정하는 과정에서 협력하고 있음.

교토NPO센터는 구 시가지의 폐교를 활용한 '히토·마치(사람과 마을) 교류관, 교토'에서 교토 시민활동종합지원센터를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시민활동과 관련한 많은 정보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복지 수요와 NPO 활동의 공급을 맞추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음. 예를 들어서 육아에 대한 욕구가 있는 시민에게 육아양육활동을 하는 단체를 연결시켜주고, 노인 돌봄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지역봉사단체와 연결하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음

[일본 강연자 소개 2] - 저출산·보육 분야

코마자키 히로키 (駒崎弘樹)

주요 경력 >>>

NPO법인 플로렌스 대표



단체 소개 >>>

NPO법인 플로렌스'NPO법인 플로렌스'는 올해 일본경제신문의 소셜비즈니스 대상을 수상하였음. 2005년 설립이후 매년 100% 가까운 성장을 기록하며, 현재 이용회원 2500 세대, 월급제 풀타임 레스큐 대원은 약 100명에 이르는 일본의 대표적인 NPO임. 일본의 직장여성들이 육아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제도로서 '아이가 갑자기 아팠을 때 간호휴가'라는



조사가 있었는데, NPO법인 플로렌스는 여성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픈 아이를 돌볼 수 있는 1:1 재택형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전문적인 레스큐 대원과 회원가정의 비율을 일정하게 유지하여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회원가정에서 아픈 아이를 돌봐줌으로써 전염성 질환 등 일반적인 보육시설에서 맡아주지 않는 경우에도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일본 강연자 소개 3] - 저출산·보육 분야

타다 치히로 (多田千尋)

주요 경력 >>>

도쿄 오모차 미술관(장난감 박물관) 대표



단체 소개 >>>

도쿄 오모차 미술관(장난감 박물관)일본의 도시아동운동 중에서 'Good-toy 운동'이 있는데, 목재 장난감이나 블록 등을 이용하여 아이들의 창의성을 길러주자는 활동임. NPO법인 일본 굿토이(Good-Toy)위원회가 운영하는 도쿄장난감미술관은 도쿄 도심의 폐교된 초등학교의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놀이를 통해 직접 물건을 만드는 즐거움을 아이들에게 전하고, 어른들이 보다 즐겁게 아이들과 놀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등을 목표로 23년간 운영되고 있음최근에는 도쿄 신주쿠 구내에서 아기가 태어나면 장난감미술관에서 나무 장난감을 선물로 배달해주는 Wood Start 프로젝트를 시작하였음. 이 장난감은 신주쿠 구와 자매결연 맺은 나가노현 이나시의 목재업체들이 만든 것으로, 이 프로젝트를 계기로 이나시는 나무장난감을 지역의 주요 산업으로 육성하기로 결정하였고, 이나시에서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확보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음

[일본 강연자 소개 4] 고령화 사회 분야

세키구치 아키오 (関口明男)

주요 경력 >>>

복지클럽 생활협동조합 전무이사



단체 소개 >>>



복지클럽 생활협동조합복지클럽생협은 1989년에 요코하마시 코호쿠구에 일본 최초의 복지 전문 생협으로 시작하였음. 2013년 5월 현재, 가나가와현 비롯하여 23개 지자체 행정 구역에 걸쳐 조합원은 1만 6,000 가구를 넘고 있음복지클럽생협은 오랜 세월 정든 지역을 떠나지 않고, 인간 관계를 유지하면서 서로 도우면서 인간답게 살기 위한 "재택 복지 지원 시스템"(커뮤니티 옵티멈 복지)을 만들기 위해서 워커스콜렉티브(이하 W.Co)의 형태로 활동하고 있음. 2013년 5월 현재 18개 업종, 99단체의 W.Co이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W. Co는 "가사·간병", "식사 지원", "이동 지원(자동차의 외출 개호)", "육아 지원"등의 분야가 있음

[일본 강연자 소개 5] 고령화 사회 분야

테라다 미에코 (寺田三恵子)

주요 경력 >>>

NPO법인 복지정 대표



단체 소개 >>>

NPO법인 복지정NPO법인 복지정은 도쿄의 타마신도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로서, 지역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교류의 장을 제공하고, 생활 지원 및 지역 정보 제공, 세대 간 교류에 의한 문화 활동 등으로 노인의 사회 참여 확대를 도모하면서 마을 만들기과 지역 복지의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음타마신도시는 71년 3월부터 입주가 시작된 곳으로서, 현재는 아이들의 성장하고 자립하여 노인이 많은 마을로 변모하고 있음. 또한 베이비 붐 세대의 부모님을 고향에서 모셔오면서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독신 생활 가구도 급증하고 있음.NPO법인 복지정의 활동은 전반적으로 고령자 지원의 맥락에 있지만, 다른 세대(世代)와의 협력 방안도 모색하고 있음. '여러 세대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범위에서 관계를 넓혀가면서,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은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음.

[국내 강연자 소개 1] - 저출산·보육 분야

정성훈

주요 경력 >>>

(사)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전문위원
서울시립대 도시인문학연구소 HK연구교수



단체 소개 >>>

(사)공동육아와 공동체 교육공동육아가 우리 사회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1994년이지만, (사)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의 바탕에는 '해송 어린이 걱정 모임'과 '공동육아연구회'라는 모체가 있었습니다. 1991년 '공동육아연구회'로 개칭하고 직접 구체적인 공동육아 터전 만드는 작업을 시작하였습니다. 그 방향은 계층 통합을 실현하는 보편적인 보육제도를 만들어 가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 육아환경의 기준을 높이고 대안적 삶의 방식을 열어갈 수 있으리라고 전망하며 부모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공동육아 터전을 만들고 서로의 기대와 가치관을 나누고 절충하며 함께 주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협동조합' 방식이 고안되었습니다. '공동육아연구회'는 1996년 '(사)공동육아연구원'으로 정식 발족하였고, 2001년 10월 '(사)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으로 개칭하였습니다. 보육만이 아니라 자라나는 아이들을 공동체적으로 키우자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국내 강연자 소개 2] - 고령화 사회 분야

박태진

주요 경력 >>>

현 원주노인생활협동조합 이사장



단체 소개 >>>

원주노인생활협동조합노인들의 자립을 위한 협동조합으로서, 2007년도 '깨끗한 학교 만들기 사업'에 참여하면서 32명의 회원으로 출발하였음. 현재는 조합원이 1500명이고 현재는 적자 없이 출자금 원금과 잉여금까지 1억여원 이상의 여유자금 운영할 수 있을 만큼 안정적으로 활동하고 있음. 직무교육을 통해서 일할 수 있는 기본소양을 갖추는 것과 함께, 노인생활에서 급여 받는 분들은 의무적으로 한 번씩 나와서 봉사활동도 하고 있음. 또한 건강하고 즐거운 노년을 위해서 등산 모임, 합창단 등 조합원들의 취미활동도 지원하고 있음조직운영에 있어서도 수평적인 관계를 중시하여, 이사장과 일반조합원의 급여가 동일하게 지급되고, 발언권도 모든 조합원들이 동일하게 보장되는 협동조합의 원리 따르고 있음.

[국내 강연자 소개 3] 고령화 사회분야

정창기

주요 경력 >>>

현 희망제작소 시니어사회공헌 센터장



단체 소개 >>>



희망제작소 시니어사회공헌 센터희망제작소 시니어사회공헌 센터는 퇴직(예정)자들이 은퇴이후의 삶을 NPO와 사회적 경제의 영역에서 사회공헌 활동을 함으로써 두 번째 인생을 개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행복설계 아카데미, 퇴근 후 Let's 등 교육을 통하여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퇴직(예정)자들의 인식을 제고하는 활동을 하고 있으며, 시니어 단체와 사회공헌활동들에 대한 컨설팅을 통해서 시니어들의 사회공헌활동 참여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나아가, 시니어들이 꿈과 희망을 통해서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세대간의 교류활동을 촉진하여 세대 간의 통합과 공감을 이끌어내기 위한 프로젝트도 구상하고 있음

[국내 강연자 소개 4] 고령화 사회분야

김창환

주요 경력 >>>

현 완주CB센터 사무국장



단체 소개 >>>

완주CB센터희망제작소와 완주군이 2010년 (재)완주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 (이하 완주CB센터)를 설립하여, 중간지원조직으로서 마을만들기와 로컬푸드, 공동체사업(커뮤니티비즈니스) 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음.완주CB센터는 완주지역사회에 사회적 경제의 싹을 틔우고, 지역사회의 공동체를 지켜나가는 것을 목표로, 고령화되는 농촌에서 다양한 농촌활력사업과 에너지 자립을 위한 마을만들기를 진행하고 있음

